"아기를 위한 세탁기 하나 더 들여놓자"

# '세컨드 가전'이 뜬다

'아기를 위한 세탁기 하나 더', '냉동고는 따로', '강력한 제습기도 있어야'.

1인 가구, 맞벌이가정 등이 늘면서 '세컨드 가전'이 뜨고 있다.

세컨드 가전의 선두 제품은 세탁기다. 최근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소형 가전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잇는 동부대우전자는 벽걸이 세탁기 '미니'로 세탁기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동부대우전자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미니'는 '아기옷 삶음 코스'가 기본기능으로, '직장맘'에게 특히 인기다. 또 젊은 세대 취향에 맞춰 로즈핑크, 민트블루 등 디자인을 한층 감각적으로 변화시켰다. 출시 이후 1년 만에 누적판매 3만3000대를 기록했다.

삼성의 아가사랑 세탁기는 2002년 처음 출시된 이후 잠잠했던 판매량이 세컨드 가전 붐을 타고 최근 들어 판매가 급상승하면서 지난 7월 누적 판매 50만대를 돌파했다. LG전자도 최근 소형 세탁기 시장에 가세해 최근 미니세탁기 '꼬망스'를 출시했다.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가 큰 세탁기를 돌리기 힘들 때

아기사랑 세탁기

소용량의 빨랫감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냉동식품과 육류를 위한 '냉동고'도 요즘 잘 나간다. 냉동고는 맞벌이 부부들이 주말에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한번에 구입하는 소비습관에 따라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한 제품으로 적절하다. 세컨드 가전의 원조라 할 수 있는 '김치냉장고'에 이어 주방의 필수제품으로 자리매김할 태세다.

디자인을 젊은층 취향으로 만든 소형 냉장고도 20~30대의 관심을

▶세컨드 가전

Second Home Appliance. 냉장고나 세탁기 등 기존 가전제품이 있지만 필요성에 따라 보완을 위해 구입하는 소형 가전제품

## 1인가구·맞벌이가정 늘어 소형 냉장고·세탁기 등 보완 가전제품 구입 열풍

## 업체들도 틈새시장 노려 다양한 상품 잇따라 출시

받으며 음료수 보관용으로 인기다. 동부대우전자의 150ℓ 용량 '콤비냉장고'는 복고풍 '레트로' 디자인을 채용, 출시 2년5개월 만에 10만대 이상 팔려나갔다.

'제습기'는 올 여름 최고의 히트상품이다. 장마가 유독 길었던 올해 덥고 습한 날씨를 극복하기 위해 날개 돋힌 듯 팔려나가면서 에어컨의 제습기능을 보완하는 세컨드 가전제품으로 변모했다. 특히 습도관리가 힘든 드레스룸이나 이불을 보관하는 안방을 위해 여름철 필수아이템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제습기는 매년 100% 이상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판매량만 최대 150만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될 정도다.

광주의 디케이산업이 선보인 '디에떼 제습기'는 올 여름 3만대의 목표물량이 순식간에 동나 추가 생산에 돌입한 것도 인기를 반증하고 있다.

주말에나 사용하던 대형 진공청소기를 대신해 쉽게 알아서 청소해주는 '로봇청소기'도 맞벌이 부부의 '1등 혼수상품'이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관계자는 "싱글맘이나 주말부부 등 소비형태 다변화에 따라 세컨드 가전의 성장세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가전 사업의 새로운 틈새 시장을 노려 다양한 소형가전제품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우윳값 '눈치보기'

## 매일유업 인상 … 유통업계 주저하자 하룻만에 유보

### 대형마트 3사 "차액 환불"

'원유(原乳)가격 연동제' 도입 이후 처음 시도된 우유업계의 우윳값 인상이 일단 유보됐다.

농협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유통업계가 정부의 물가상승 억제 의지와 가격인상에 대한 비난여론 등을 고려해 우윳값 인상분을 유통마진에서 빼는 방식으로 인상가 반영을 하지 않자 우유값 인상을 추진했던 유업계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유업계가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가격 인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우윳값 인상을 시도했던 매일유업은 유통업계에서 가격 인상 보류 움직임이 이어지자 모든 제품 가격을 일단 종전 수준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유업은 이날부터 흰 우유 가격을 10.6%, 다른 유제품 가격을 9.0% 올릴 계획이었다.

매일유업의 가격 인상 계획을 보류시킨 유통업계의 움직임은 하나로마트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로마트는 이날 매일유업의 모든 우유와 유제품을 기존 가격에 판매했다.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최저가 정책 유지를 위해 매일유업의 제품 가격을 동결했고, 홈플러스도 이날 하루 인상했던 제품 가격을 환원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3사는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기간에 상관없이 차액(흰우유 기준으로 ℓ 당 250원)을 환불한다는 지침을 전 점포에 내려보냈다.

이처럼 유통업계가 눈치보기 속에 가격인상을 주저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매일유업은 가격 인상 보류 방침을 정하고, 이를 각 유통업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업계는 원유가격 인상과 마진률 하락 등의 상황이 있는 만큼 추후 인상요인을 우윳값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금리 2.5% 동결

## 한은 금통위, 경기 완만한 회복세 … 동결행진 장기화될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2.50%)에서 동결한 것은 국내 경기가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띠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금리를 0.25%p 인하한 이래 석 달 연속 동결이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예상 경로를 따라 회복하고, 특별한 대외악재가 덮치지 않는 한 한은의 동결행진이 다시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장은 이미 이달 금리결정을 점쳤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말 채권전문가 1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에서도 전원이 이달 동결을 예상했다.

금투협은 "(전문가들이) 2분기 성장률 호조와 미국 경제지표 개선 등 금리 상승유인이 존재하지만, 중국 경기둔화와 내수부진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어 금리가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달 초 내놓은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광공업생산·소비·투자 등 실물지표가 개선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처음으로 회복세를 언급했다.

기준금리의 첫 번째 고려요소인 물가는 여전히 하향 안정세다. 7월 물가 상승률은 1.4%로 전월(1.0%)보다 확대했지만, 상승률은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 /연합뉴스

# 소리샘보청기 2000만원 경품행사

### 창립 20주년 맞아 10월까지

소리샘보청기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10월까지 3개월 간 2000만원 상당의 경품행사를 실시한다.

1등에게 500만원대 고급형보청기 증정과 함께 참가자 전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이번 행사는 소리샘보청기 홈페이지(www.sorisem.co.kr)에 응모하면 즉시 결과를 알 수 있다. 당첨자는 가까운 소리샘 가맹점에서 경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리샘보청기는 소음을 감소시키는 'Voice iQ ²' 기술과 들을 수 없던 고주파 소리까지 전달해주는 'Spectral iQ' 기능을 갖췄다. 특히 음향센

서가 주변 환경 변화를 빠르게 감지해 사용자의 청력에 따라 주파수별로 필요한 음만큼 증폭해주고 외부의 잡음과 소음을 차단해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귀를 보호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정봉승 소리샘보청기 대표는 "소리샘보청기는 난청으로 고생하는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며 "이명보청기와 무선보청기, 기성귀속형보청기, 개인맞춤형 블루투스 음성증폭기등 신제품 출시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한정화 중기청장 광주 방문

### 수출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사진>이 중소 수출기업 등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8~9일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한다.

지난 3월 취임한 이래 4번째 광주를 방문하는 한 청장은 8일 오후 광주에 도착, 6개 광주·전남 중소기업단

체장이 초청하는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의 역할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9일 오전에는 광주경영자총협회 조찬포럼에 참석,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정책방향' 주제로 강연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눈다. 이어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5개 수출유관기관장, 15개 수출기업 대표 등이 참석하는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 및 오찬'을 하고 수출기업의 각종 애로와 건의 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또 전남 담양의 유기 가공식품 생산업체인 '산들촌'과 광주 평동산단의 축전지 자동화 제조설비 제작 수출 기업인 '무진서비스'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을 계획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코스피지수 | 코스닥지수 | 금리 (국고채 3년) | 원·달러 환율 |
|---|---|---|---|
| ▲ 1,883.97 (+5.64) | ▲ 555.30 (+0.57) | ▼ 2.92% (-0.02) | ▼ 1,113.00원 (-5.70) |